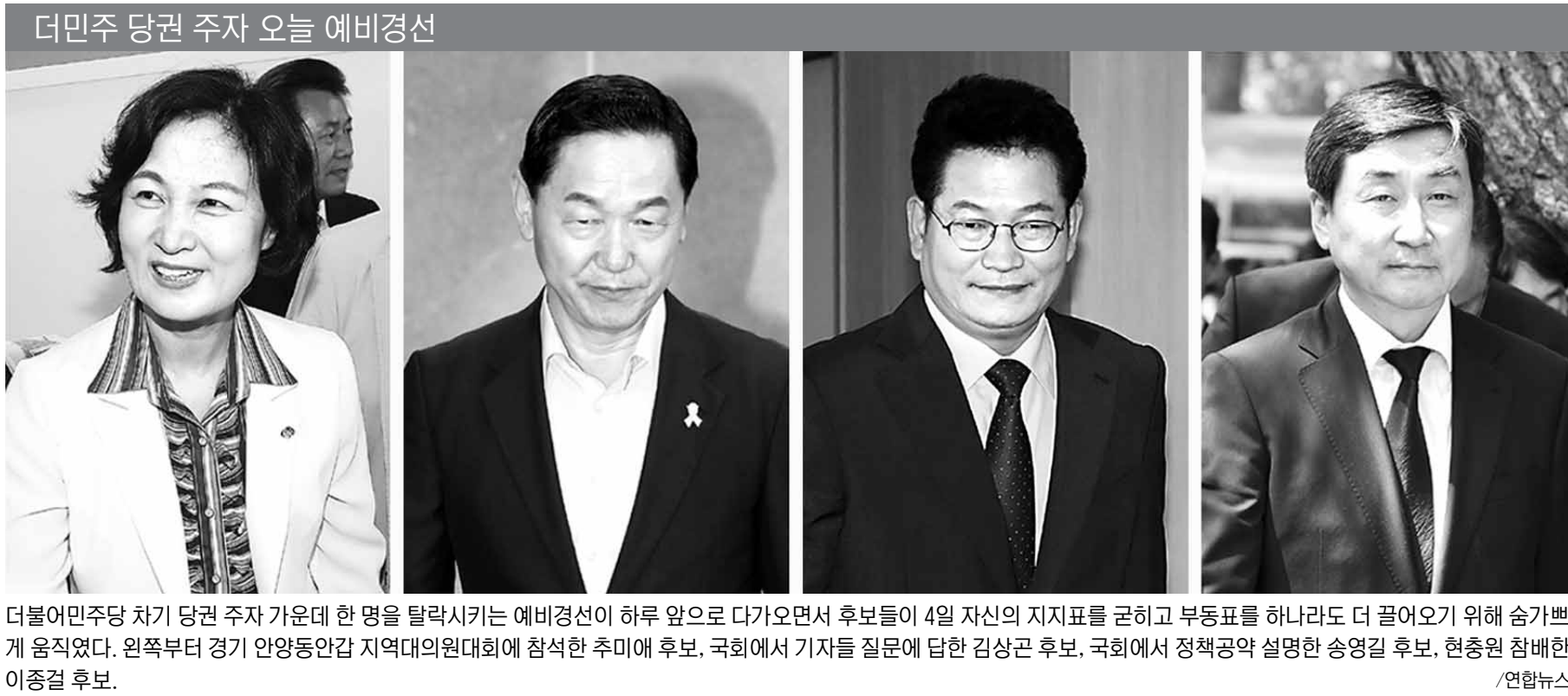




너도나도 ‘DJ 마케팅’…컷오프 통과 사활

文心에 호소하던 후보들 계파 지우고 호남 표심잡기

김홍걸 함께 DJ 묘역 참배…“정치적 이용” 논란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을 탈락시키는 예비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송영길, 이종걸, 김상곤 후보는 4일 지지표를 굳히고 부동표를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각 후보들은 중앙위원들과의 막판 물 밑 접촉은 물론 언론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거나 약점을 불식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추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계파가 없었다. 외로운 정치를 했다”며 “제가 진문(진문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했다는 하나의 근거를 갖고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계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역시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 후보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고향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곳이며, 우리 더민주의 고향은 호남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실행민”이라며 “개혁적인 호남의 힘으로 당의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와 뜻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러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남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비주류 표심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마케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걸 후보는 이날 DJ 묘소 참배에 김홍걸 전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했으며 지난 2일에는 김상곤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DJ 묘역을 찾았다.

추 후보는 5일 김홍걸 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송 후보는 지난 달 22일 부산 북구청에서 열린 김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

에 참석한 바 있다.

호남 표심을 겨냥한 각 후보들의 ‘김홍걸 마케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김홍걸 위원장과 함께 호남을 방문,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DJ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호남 정치권 관계자는 “DJ의 장남과 차남인 김홍일 김홍업 전 의원은 군사정부로부터 각종 탄압을 받으면서 국민의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설득력이 있다”며 “하지만 김홍걸 전 위원장은 DJ의 아들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야권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당 대표 경선과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대통령 “사드, 성주내 다른 지역도 검토”

靑서 TK 초선 의원 회동…국방부 재검토 착수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빚어지는 경북 성주 지역민들의 반발과 관련, “입지로 확정된 성산(포대) 말고 성주군 내 다른 적합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과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성주군민들의 사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전해 듣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조사하도록 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전했다.

성주군민들은 사드 레이더가 성산포대에 위치할 경우 레이더빔이 성주군의 중심부를 지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이완영 의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사드 배치지역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朴-文-孫 만남 성사?

〈지원〉 〈재인〉 〈학규〉

孫, DJ 7주기 행사 참석 검토…文, 격려사 메시지 주목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는 6일 목포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기념행사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오는 9월 정계 복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손 전 고문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일 손학규 전 고문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인으로부터 DJ 평화캠프 행사에 대해 연락을 받았다”며 “(손 전 고문 이) 아직 별다른 말씀이 없는 상황이며서 참석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 전 고문 이)지난 6월 목포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다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DJ 서거 7주기라는 점에서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격려사를 할 예정이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이날 ‘DJ 정신’ 승계 등을 내세우며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 방문을 계기로 아직은 미온적인 호남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이번 방문에서 지난 총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도 관심사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광주를 찾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고, 호남에서 참패하자 “호남이 저를 버린 것이지 더 노력하며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7일 김대중 평화캠프가 마련한 남도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광양으로 이동, 독립운동가인 매전 황현 선생의 생가를 방문한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 문 전 대표가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변의 유적지도 함께 돌아보고 싶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구한말 외세에 맞선 대표적 유학자이자 애국지사인 매전 선생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김영란법 3-5-10 시행령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5일 진행됐다.

법제처는 이날 “내일(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할 예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간간 법리적 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의회 안건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그 외 사항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 업무는 국무조정실 등으로 넘기게 된다.

정부 내에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시행령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에서 협의회가 개최돼도 시행령안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박 vs 비박 ‘폭풍전야’

與 전대 D-4…박대통령 의중·비박 단일화 놓고 설전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가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의 소재와 후보 단일화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4·13 총선 참패의 책임론 속에서 서로를 향한 직접적 공격을 자제해온 양대 계파가 당권의 향방을 가를 전대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대립의 날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구·경북(TK) 지역 초·재선 의원을 청와대로 부르자 비박계는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고 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민심 정취가 목격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전대에서 친박계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박계 후보들의 단일화도 시한폭탄이다. 비박계 정병국, 추호영 후보는 전날 오후에도 양측 캠프의 실무진을 통해 후보 단일화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외에서는 늦어도 5일까지는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